

기아차 파트장협의회, 장애인 초청 야구관람



장애인문화협회 회원들과 초등학생들이 지난 23일 기아차 광주공장 파트장협의회 초청으로 야구 관람을 위해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방문,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전남대 수산해양대학-어촌어항협회 협약



전남대 수산해양대학(학장 장덕중)은 최근 수산해양대 학장실에서 한국어촌어항협회(이사장 류정호)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대 제공>

동부소방서, 日 요코하마시 소방악단 간담회



광주동부소방서(서장 김남윤)는 지난 24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일본 요코하마시 소방국 소방악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양 도시의 선진 소방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다. <광주동부소방서 제공>

비금농협 농기주부모임, 농산물 기부



비금농협 농기주부모임(회장 양홍숙)은 최근 지역에서 생산한 감자 10kg짜리 600여 상자, 상자를 35개 마을 경로당과 사회복지단체 등 40여 곳에 전달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1970~1980년대 복싱 강국 만든 '국민 영웅'

여수서 자란 김기수 한국 첫 세계 챔피언 반세기

50년 전 6월 25일은 김기수(1939~1997)가 한국 최초로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에 오른 날이다.

1966년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도전자 김기수가 챔피언 니노 벤베누티를 이겨 세계복싱협회(WBA) 주니어미들급 타이틀을 거머쥔 것이다. 여수에서 잔뼈가 굵은 김기수가 전남을 대표하는 씨름선수에서 역도산의 제자를 거쳐 복싱 선수로 변신한 뒤 이른 쾌거였다.

한국 프로복싱 역사상 첫 세계챔피언을 배출한 이 대회는 천신만고 끝에 성사됐다. 이탈리아 출신인 벤베누티는 서울 원정 대전료로 5만5000 달러를 요구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131달러였다.

대전료 마련이 막막할 때, 청와대에서 김기수를 불렀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기수 선수, 이길 자신 있어요?"라고 물었다.

김기수는 "젓 먹던 힘까지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박 대통령은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전료를 내주라고 지시했다.

장충체육관에는 관중 6500여 명이 가득 메웠다. 박 대통령까지 현장에서 지켜보기에 사각의 링에 오른 김기수는 엄청난 부담을 가졌다. 그때까지 벤베누티가 65전승을 거둔 강자라는 사실도 신경 쓰였다. 김기수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그와 맞붙어 패한 경험도 있었

씨름·레슬링 거쳐 복싱 입문

1966년 장충체육관 승리 때 박정희도 자리 박차고 박수

2007년 이후엔 챔피언 '0명'

다. 김기수가 절대 열세라고 대다수 전문가가 평가한 이유다.

1회전 공이 울리자 이런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초반부터 불꽃 튀는 접전이 전개됐다. 경기 종료 후 한국 심판은 김기수 승, 이탈리아 심판은 벤베누티 승으로 결정해 1대1이 됐다. 나머지 심판 한 명이 김기수 손을 들어주면서 역사적인 세계챔피언이 탄생했다.

신문들은 세계챔피언 등극 소식을 호외로 알렸다. 7월 15일에는 현장 영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세계의 철권왕 김기수'가 전국 대형 극장에서 일제히 개봉했다.

1951년 1·4 후퇴 당시 함경남도 북청에서 월남한 김기수는 전쟁 탓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김기수가 1966년 6월 2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세계복싱협회(WBA) 주니어미들급 타이틀을 획득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남침 일인 6월 25일에 인생 항로를 화려하게 바꿨다.

전남 여수에 정착한 그는 만능 스포츠맨이 었다. 여중학교 3학년 때 전남을 주름잡는 씨름 선수로 활약했다. 훗날 유명 레슬러가 된 김일에게 패하고서 일본으로 건너가 역도산 문하에서 레슬링을 배웠다.

그러나 역도산이 사망하자 레슬링 꿈을 접고 귀국해 복싱으로 전향, 복싱 명문고인 성북고에 진학했다.

광복 이후 첫 세계챔피언의 영광을 조국에

안긴 그는 2년 뒤 3차 방위전에서 챔피언 벨트를 잃어 통산 전적 37전 33승(18KO) 2무 2패를 남기고 글러브를 벗었다.

김기수 이후 한국은 1970~1980년대 프로복싱 강국으로 군림했다. 세계챔피언을 44명이나 배출했다. 그러나 2007년 7월 이후에는 상황이 반전됐다. 챔피언 벨트를 반납한 지인신을 끝으로 챔피언 명맥이 끊겼다. 김기수의 첫 세계챔피언 등극 50주년은 한국 복싱의 조라한 현실과 맞물려 더욱 쓸쓸한 여운을 남긴다.

광복 이후 첫 세계챔피언의 영광을 조국에 <연합뉴스>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광주 용봉점 7주년 맞이 나눔행사 '책 나와라 똑딱! 꿈 나와라 똑딱' 행사가 지난 25일 헌책방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 수익금 320만원은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데 쓰인다.

책나눔·바자회 수익금 320만원 아이들 꿈 응원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용봉점 7주년 나눔행사 열려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광주 용봉점 7주년 맞이 나눔행사 '책 나와라 똑딱! 꿈 나와라 똑딱' 행사가 지난 25일 헌책방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책 나눔 행사와 바자회, 음악회에는 200여명이 참석해 책과 바자상품 등을 구입, 모두 32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삼성생명에서는 헤어디자이너가 꿈인 미영이(가명)에게 헤어 기구 세트 등을 선물했으며 야구선수를 꿈꾸는 영호군(가명)에게는 기아 타이거즈에서 영호군이 좋아하는 이범호 선수의 모자와 유니폼 등을 전달했다. 또 핸드볼 특기생 철호군에게는 조선대학교 핸드볼 팀 선수들이 사인한 담근 핸드볼 공을 선물, 응원했다.

도시 나눔 행사에는 여러 단체가 참여했다.

미래에셋에서는 헌책 1000여권과 어린이를 위한 추천도서 100권을 기증했으며 바림개비도서관, 책돌이도서관, 무등도서관, 사직도서관, 생활정치발전소, 광주일보가 함께했다.

기념식에 이어 열린 책방음악회에서는 가야금 연주자 김현아, 바리톤 최교성, 소프라노 박성경씨 등이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했으며 특히 광주예육원 중장년 '꿈을 품은 메아리'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2009년 문을 연 헌책방은 기증받은 도서, 음반, 사회적기업 제품 및 공정무역, 재사용 디지털제품 등을 판매, 수익금을 이웃들과 나누어 왔으며 '활동 천사' 23명이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다. 헌책방은 월~토요일까지 문을 열고, 문의 062-514-8975. <김미은기자 mekim@



한전, 나주 자매결연 마을과 '1처 1촌 한마음 행사'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23일 본사에서 나주시 36개 자매결연 마을 이장단과 한전 전 차·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1처 1촌 한마음 행사'를 열었다.

'한마음행사'는 자매결연 시·도민들과 행복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 한전 나주시대를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올해 한전이 포브스 선정 세계 1위 에너지 전력회사로 선정된 것과 지난해 1처 1촌 실적, 올해 자매결연 마을과 추진하는 '우리마을 뽀개기 공동프로젝트'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또 지역민 1300여명이 참석한 '김성녀의 어머니의 노래' 문화공연도 열렸다.

한전은 지난해 2월 본사 이진을 한 뒤 지사 단위로 시행한 자매결연을 본사 전체조직으로 확대해 창시 이래 최초로 대대적인 1처 1촌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다.

조환익 사장은 "한전이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국가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웃사촌을 넘어 한마음, 한가족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인사

- ◆광산군
- ◆4급 승진 ▲ 김승현 기획관리실
- ◆5급 승진 ▲ 백금 건설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급(부이사관) 승진 ▲마상호 전라북도선관위 지도과장

◇4급(서기관) 승진

▲이해영 목포시선관위 사무국장 ▲김병삼 장흥군선관위 사무국장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서해현(서광병원 원장)·류혜경(서광병원 원장)씨 정남 상현(카이트 연구원) 군 김민순씨 차녀 김미정(카이트 연구원) 양=7월2일(토) 오후 2시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카이트 정문술 빌딩 1층 드림홀.

▲재광 나주향우회 회장 이·취임식=7월7일(목)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P & I웨딩홀 4층, 이임회장 이덕찬, 취임회장 김보근.

종친회

▲하동정씨 장령공파 화목회(회장 정동열) 하계수련회=29일(수) 오전 8시30분 광주역에서 출발, 순천 강천사 순재묘 참배.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청보화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

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람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로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사)'장애인먼저' 실천광주운동본부 회원=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각종 장애인관련 행사 보조,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등. 062-511-0030, 514-2929.

▲광주·전남불교신도회원=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안전모니터봉사단원=재난안전사고 예방신고, 제보활동 안전부주의, 안전불감증 등 국민의식개선에 대한 홍보등의 활동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광주시민 누구나 가능) (사)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광역시지회 062-514-2929.

▲푸른길통통문화마을 회원=푸른길 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부음

▲한광삼씨 별세 한홍성(목포지방 해양수산청)·홍렬·희진씨 부친상 최덕주씨 부

부상=발인 27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박순임씨 별세 신현호·태호·춘옥·수복·복덕씨 모친상 조원식씨 빙모상=발인 28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謹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김형근 님(남/80세) 子/子婦: 김석균/김성미, 한군 女/婿: 김화영/이 군 未亡人: 서정숙 *발 인: 6월 27일 *장 지: 화산학원사	401호 故최갑순 님(여/88세) 子/子婦: 김영만/서미숙, 영실/유재경, 영문/장은선 女/婿: 김점순, 선순/윤인학 未亡人: 서정숙 *발 인: 6월 27일 *장 지: 내남동 선영
402호 故김봉천 님(남/77세) 子/子婦: 김연일/이와교, 원철 未亡人: 심연남 *발 인: 6월 27일 *장 지: 영락공원	101호 故강현도 님(남/62세) 子/子婦: 강환춘/최연수 女: 강경희 未亡人: 심연남 *발 인: 6월 27일 *장 지: 영락공원
102호 故장리조 님(남/76세) 子/子婦: 장 영/윤애, 원/조희정 *발 인: 6월 27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孝 金호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